

정읍시 무성서원 세계유산 가치 조명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학술대회 각계 전문가 4명 활성화 주제 발표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정읍시는 최근 이학수 정읍시장과 서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활용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읍시와 불우현 정극인 선양회가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서 주관했다.

전북대 한문종 교수의 '전라북도의 서원사주의 현황과 무성서원의 위상'이라는 주제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4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북대 박정민 교수는 정읍시에서 설정한 태산선비문화권의 재설정 문제와 무성서원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북대 남해경 명예교수는 무성서원의 건축학적 특성과 그 일대 문화재 추진 전략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 인하대 윤인현 교수는 무성서원에 배향돼 있는 불우현 정극인의 삼촌곡에 대해 설명하고, 보다 세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원광대 유미나 교수는 채용신과 정읍, 그리고 무성서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의 작품세계에 비추진 정읍과 무성서원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박양수 정읍시 동학문화재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성서원 주변의 수 많은 문화유산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활용방안 학술대회'가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읍시 제공>

? 무성서원 최치원을 모신 태산사(泰山祠)와 정극인의 향학당(鄉學堂)을 근간으로 해 1696년(숙종 22년) '무성(武城)'이라는 사액을 받은 조선시대 국가 공인 서원이다. 대원군의 서원철폐에도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았다. 또 을

사낙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1906년 무성서원에서 강회를 하며 장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항일의 병을 일으킨 '병오장의(丙午倡義)'의 중심지로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아 무성서원은 1968년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선정됐다.

들과 어우러져 무성서원의 위상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中 짜오좡시와 첫 국제 '자매도시' 결연 체결

심덕섭 군수 등 중국 방문 협정 경제·문화·관광·농업 등 교류

고창군이 중국 산둥성 짜오좡(棗莊)시와 첫 번째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가 최근 중국 짜오좡시를 방문해 자이준 시장과 만나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고창군과 짜오좡시는 앞으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경제무역, 문화, 관광, 교육, 농업,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진하고 양 도시의 정기적 연락을 유지하는 한편 공동관심사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군과 짜오좡시는 2005년 우호교류 협의서 체결 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코로나19 이후 교류가 잠시 주춤하던 때에도 구호물품 전달 및 관내 중고등학교학생 중심의 비대면 '청소년 외교관 운영' 등의 교류를 이어왔다.

또 짜오좡시에서는 지난달 '제50회 고창모양성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 고창군민과 축제장에서



심덕섭(앞줄 왼쪽 세번째) 군수와 자이준(앞줄 왼쪽 네번째) 짜오좡시 시장 등이 자매결연 협정서에서 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교류하는 뜻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과 짜오좡시는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교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고창군은 세계 주요 도시

와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양도시가 서로 배울 점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21억 들여 6개면에 태양광 시설

고창군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고창군은 최근 산업자원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관내 주택과 공공시설 28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을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총사업비 21억원으로 6개면(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대산면, 심원면)에 태양광 23개소,

태양열 9개소, 지열 8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2층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한국에너지공단-고창군-건설사업체 간 공동협약 체결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유석상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과 에너지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원' 야경.

<남원시 제공>

남원 광한루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관광공사 전국 아름다운 야경 평가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곳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전국의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공식브랜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광한루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매력적인 지역 야간경관이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100개를 선정해 지역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야간에도 광한루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K

-명승(광한루원) 달빛유취'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한루원 돌담길의 은은한 빛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면 마주하게 되는 달나라 궁전 광한루와 무빙라이트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완월정, 마치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삼신산은 신비로운 광한루원의 밤 풍경을 완성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을 통해 남원의 아름다운 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원이 가진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체험형 관광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12월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정읍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25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쓰레기 무상수거에 나선다.

특별 수거기간에는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배추, 무, 파 등을 비롯해 채소를 다듬은 껍질, 뿌리 등 채소 부산물을 투명 비닐봉투나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단 흙이나 노끈, 지푸라기 등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절임배추나 김장 양념류 등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 규격봉투 또는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상 수거기간 중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하거나 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